

##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정치권 초당적 협력을”

### #일주\_이슈

#### 본보, 지역 국회의원 설문조사

광주 의원 “무안 이전, 소통 선행”  
지역 아닌 국가차원의 기회 강조  
전남 의원 “市 주도 지원책 모색”  
국힘, 대통령·여당 전폭 지지·지원

답보상태에 빠진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관련 특별법도 마련됐지만 무안군의 완강한 반대와 시·도 간 불협화음 등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의원(동행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민·군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찬반은 물론, 이전 방식, 정치권이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설문 결과, 광주지역 의원들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전남지역은 설문에 응한 의원이 2명에 불과하는 등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고, 특히 무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이전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광주 의원들은 정치권이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군택(광산구갑)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무안군민들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고 호남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준호

(북구갑) 의원은 “군민 소통 이전 ‘단체장 3자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북구을) 의원은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 정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민·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인한 이익은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동남갑) 의원도 “대규모 자원이 들어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광주·대구·수원 등 3개 지역에서 군공항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일괄적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대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지역 응답 의원들은 “광주시가 이전 관련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에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전에 따른 충분한 경제유발 효과가 확실치 않음에 따라 광주시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군공항 통합이전은 광주시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전남도가 ‘기피시설’이라고 반대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 공인 국제대회 문화 유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깃털·1도1뮤지엄 등 정책 호평

신안군이 영국 비영리 단체인 세계살기 좋은도시상 협회(IALC)가 주관한 2024 리브컴 어워즈에서 ‘살기 좋은 도시 금상’을 수상했다. 신안군이 펼치고 있는 깃털, 1도1뮤지엄,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 등의 정책 행보가 호평을 받았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 참석해 ‘살기 좋은 신안군’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장성 백양사 애기단풍 주말 절정  
온화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장성 백양사를 찾은 수 많은 관광객들과 사진작가들이 쌍계루 인근 애기단풍을 카메라에 담는 등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단풍 절정시기는 이번 주말 즈음 예상된다.

김양배 기자

## 신안군, 2024 리브컴 어워즈 ‘살기 좋은 도시’ 금상

유엔환경계획 공인 국제대회 문화 유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깃털·1도1뮤지엄 등 정책 호평

신안군이 영국 비영리 단체인 세계살기 좋은도시상 협회(IALC)가 주관한 2024 리브컴 어워즈에서 ‘살기 좋은 도시 금상’을 수상했다. 신안군이 펼치고 있는 깃털, 1도1뮤지엄,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 등의 정책 행보가 호평을 받았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 참석해 ‘살기 좋은 신안군’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신안군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리브컴 어워즈 대회에서 살기 좋은 도시 금상을 수상했다.

신안군제공  
에 나선 결과 살기 좋은 도시 금상을 받았다. 리브컴 어워즈는 1997년부터 시작된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하는 세계 적 권위의 국제대회로 영국 비영리 단체인 세계살기좋은도시상 협회(IALC)가 주관하는 상이다. 4면에 계속  
조진용·신안·홍일갑 기자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